

---

#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임홍빈·서울대학교 교수

---

## 1. 목적

본고는 외래어의 정확한 개념은 어떠한 것이며, 그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로서 소박한 견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 이래 우리말에는 중국에서 많은 외래어가 들어왔고, 범어, 몽골어, 여진어, 만주어 등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sup>1)</sup> 근대에는 서양 문물과 함께 많은 서구 외래어가 주로 일본을 통하여 우리말에 들어왔다. 일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적지 않다. 이런 외래어는 좋든 싫든 민족이 겪어 온 역사적 삶의 일면을 말해 준다. 문화와 문화의 접촉, 민족과 민족의 접촉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언어에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다.

외래어를 받아들인 역사가 비록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다른 언어에서 받아들인 외래어가 우리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접촉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이 오늘날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가 있었는지 알

---

1) 이에 대해서는 최남선(1946), 이기문(1965, 1972), 유창돈(1971), 남풍현(1985), 임홍빈(1996), 정재도(1996) 등이 참고된다.

지 못한다. 남과 북이 단절된 상태에서 언어마저 이질화의 깊은 골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외래어는 또 다른 이질화의 근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어 문제는 1985년 『국어생활』 제2호(1985. 6.)에서도 특집으로 다루어진 바 있고, 『새국어생활』 제8권 제2호(여름) 및 『새국어생활』 제14권 제2호(여름)에서도 특집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이제 새삼스럽게 외래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외래어 문제에 관심이 많고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래어는 그 표기법이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쉽게 쓰기 어렵다.

‘자료’를 뜻하는 우리의 외래어를 ‘데이터’라고 해야 할지, ‘데이타’로 써야 할지 누구나 순간 망설이게 된다. 외래어표기의 원칙과 실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 문제에서 쉽게 답을 얻기는 어렵다. ‘data’의 영어 발음을 상고하여 ‘데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티’ 부분이 쉽지 않다. 영어 사전에서 ‘data’의 영어 발음 기호 [dɛɪtə]를 참조한 뒤에야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영어 사전에는 [dɛɪtə]뿐만 아니라, [dɑ : tɑ]도 있고 [dætə]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데이터’를 \*‘다티’나 \*‘대티’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다티’나 \*‘대티’라고는 왜 할 수 없는 것인가? ‘외래어표기법’은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규범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티’나 \*‘대티’는 관용으로 익은 것도 아니거니와 외래어표기 규범에서 허용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보기로 하자. ‘색깔’을 뜻하는 영어 외래어도 ‘컬러’인지 ‘칼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여기에 양복이나 와이셔츠 따위의 ‘깃’을 뜻하는 ‘칼라(collar)’까지 뒤섞여 있어 웬만큼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외래어 하나 쓰려 해도 반드시 국어사전이나 외래어 용례집을 참조해야 한다. ‘색채’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그 발음이

[kʰlɔr]와 같이 되어 있다. [ɫ]도 ‘어’로 쓰게 되어 있고, [ɔ]도 ‘어’로 쓰게 되어 있으므로, 모두 ‘어’가 쓰인 ‘컬러’가 맞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칼라’이지 ‘컬러’는 아니라고 우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외래어표기는 단어 하나하나가 외래어표기법이나 심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 외래어의 기본 성격에 대한 검토

외래어(外來語, a foreign word, a word of foreign origin)는 다른 말에서 우리말 속에 들어온 어휘적 요소를 가리킨다. 외래어를 한때는 “들온 말”이라고도 하였다. ‘외래어’에 반대되는 것은 ‘고유어’이다. 한 언어가 전통적으로 과거의 언어에서 물려받아 자신의 고유한 언어재로 가지고 있는 말을 ‘고유어’라고 한다면, 그와는 반대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말을 ‘외래어’라 한다.

‘외래어’를 언어학적으로는 ‘차용어(a borrowed word)’라 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언어에서 빌려다 쓰는 말이라는 뜻이다. 다른 언어에서 빌려다 쓴다고 하여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차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되갚아야 할 의무나 부담을 지는 것도 아니다(남풍현 1985 참조). 동화의 정도에 따라 ‘외래어’와 ‘차용어’를 구별하는 일도 있으나(김민수 1973, 최경은 1994, 김원 2003, 정희원 2004),<sup>2)</sup> 여기서는 동화의 정도에 의한 대립으로는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 차용원에 따라, 방언에 대해서는 ‘외래어’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을 인정한다.

---

2) 최경은(1994), 김원(2003), 정희원(2004)에서는 동화가 더 많이 된 것을 ‘차용어’, 동화의 정도가 낮은 것을 ‘외래어’로 구별하고 있다. 정희원(2004) 참조.

차용어는 차용 현상의 결과 한 언어의 단어가 다른 말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그것을 준 언어와 받은 언어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1) 가. 차용원(借用源): 그 언어로부터 어떤 말이나 요소가 온 언어를 말한다.

나. 매개 언어(媒介言語): 차용이 어떤 언어에서 직접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언어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일 때, 그 중간에 놓이는 언어를 말한다.

다. 차용주(借用主): 다른 언어로부터 어떤 어휘나 요소를 빌려오는 언어를 말한다.

차용이 중간에 다른 매개 언어를 가지지 않고 직접 이루어질 때를 '직접 차용'이라 할 수 있고, 중간에 다른 매개 언어를 통하여 차용이 이루어질 때를 '간접 차용'이라 할 수 있다. 한때는 '양동이'를 '바께쯔'라고 한 일이 있다. 이는 영어의 '버킷(bucket)'이 일본어에 '바케츠'와 흡사한 발음으로 차용된 뒤에 다시 우리말에 차용된 것이다. '양동이'는 전통적인 '물동이'에서 유추하여 '바께쯔'를 순화한 말이다.<sup>3)</sup> '바께쯔'를 쓰던 때에 비유하면, 그때 차용원이 되는 말은 영어이며, 일본어는 매개 언어라 할 수 있고, 우리말은 차용주가 된다. '바께쯔'는 영어에서 '간접 차용'된 것이다. '쓰레빠'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영어를 차용원으로 하며 일본어를 매개 언어로 하는 것이므로, 영어에서 간접 차용된 말이다. '쓰레빠'에는 일본어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를 '슬리퍼' 혹은 '실내화'로 순화한 것이다. 우리말은 차용주의 위치에 있다.

---

3)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버킷(bucket)'이 "기증기 끝에 붙어 흙,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기능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물건이다. '바께쯔'나 '바케츠'와 같은 어형은 올려 있지도 않다. 한글학회(1992)의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버킷'도 찾을 수 없다. 이는 '양동이'가 거의 정착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용은 어휘적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법적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앞의 것을 ‘어휘적 차용(lexical borrowing)’, 뒤의 것을 ‘문법적 차용(grammatical borrowing)’이라 한다. 차용은 대부분 어휘적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드물게는 문법적 층위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예는 문법적 차용이나 영향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 (2) 가. 김 영감이 문 앞에서 왔다가 갔다 한다.  
 나. 김 영감이 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다. Wareware-wa soko-de non-dari ason-dari siteimasita(우리들은 그곳에서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였습니다.)

(2가)의 밑줄 친 부분은 ‘~-다가 ~-다가 하’와 같은 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어떤 행동이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흠 없는 우리말 구성이다. 1945년 독립 후 일부 사람들이 농담으로 (2나)와 같은 구성을 쓰는 일이 있었다. 비록 우리말 전체가 (2나)와 같은 구성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인 일은 없으나, (2나)는 일부 일본어의 문법 구성에 의한 영향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2다)는 일본어의 한 가지 예를 보인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sup>4)</sup>

- (3) 가. 告호디 直과 信과로뻘 흐느니(내훈 1: 69)  
 나. 告之以直信 흐느니(내훈 1: 68)
- (4) 가. 禮記에 닐오디 昏혼는 禮는 萬世의 비르소미니 다른 姓을 取호요 문 뻘 머리 호몰 브터 흐며 淵해요몰 두터이 하는 배니라(내훈 1: 69).  
 나. 禮記에 曰호디 夫 昏禮는 萬世之始 | 니 取於異姓은 所以附遠 厚別也 | 나라(내훈 1: 68).

4) 띄어쓰기는 필자가 한 것이다.

(5) 가. 그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럼으로써 행복을 삼는다.

나. 그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써 행복을 삼는다.

(3나)는 구결문이고, (3가)는 (3나)에 대한 언해문이다. (3가)의 밑줄 친 ‘써’ 혹은 ‘로써’는 (3나)의 밑줄 친 ‘以’에 대한 언해이다. ‘로써’는 ‘로 써’의 선대형으로 ‘~을 가지고’의 뜻을 가지는 조사이다. 그 용법은 우리 말의 문법 체계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4가)의 밑줄 친 ‘써’는 (3가)의 ‘로써’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以’를 ‘써’로 언해한 것은 동일하나, 그 용법은 우리의 문법 체계와는 다소 거리를 가지는 것이다.<sup>5)</sup> 이는 (5가)와 달리 (5나)가 이상을 가지는 것과 흡사하다. (5나)는 온전한 우리 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말은 (5가)와 같이 ‘써’ 앞에 관련 대용 형식을 가져야 한다. (4가)의 밑줄 친 ‘써’와 같은 용법은 언해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형식이라고는 하나,<sup>6)</sup> 한문의 특정한 문법적 요소가 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법적 차용은 매우 드문 일이다. 차용은 일반적으로 어휘적인 층위에서 일어난다. ‘외래어’나 ‘차용어’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차용’의 원리적 성격이나 ‘외래어’의 정의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로 한다.

(6) 가. 블룸필드(1933: 444)의 차용: 어떤 언어가 자기의 지배적 전통과 다른 자질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언어적 차용’이라 한다(The adoption of features which differ from those of the main tradition, is *linguistic borrowing*).

나. 이희승(1949, 1959, 339-40)에서는 외래어의 속성을 “본래는 외국어로서, 어떤 민족의 언어 사회에 들어가서, 상당히 보급될 일, 그 발음

5) ‘所以’는 까닭을 뜻하는 것인데, 언해문은 그것을 ‘所’와 ‘以’로 나누어 풀이한 것이다.

6) 언해문에 나타나는 ‘以’의 이러한 쓰임에 대해서는 남풍현(1972)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외국어 발음대로 생소하지 않고, 받아들인 언어 사회의 음운 법칙에 의하여 동화될 일, 따라서 외국어를 모르는 일반 민중이라도 능히 발음도 하고 그 뜻을 이해도 하여, 외국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이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일(띄어쓰기 및 어투 조정 필자)"과 같이 특징짓고 있다.<sup>7)</sup>

다. 김민수(1973: 103-104)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ㄱ. 외국에서 들어와야 한다.
- ㄴ. 수입되어야 한다.
- ㄷ. 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한다.
- ㄹ. 사용되어야 한다.
- ㅁ. 단어라야 한다.

라. 강신항(1983: 116)에서의 외래어: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끼리의 접촉 과정에서, 어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단위를 빌려다가 자기 언어 체계 안의 단위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을 차용(borrowing)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새로운 언어 단위는 거의가 단어 단위이기 때문에 차용어(borrowed word, loan word), 또는 외래어라고 한다.

마. 오즈카 외 편(1982) 및 조성식 외 편(1990)에서의 차용: 하나의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 체계에서 일정한 언어 요소를 받아들여 그 언어 체계의 유기적 일부로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바. 김세중(1998)에서는 외래어는 국어 어휘 중에서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의 속에는 외래어의 두 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외래어는 국어에 본래부터 있던 어휘가 아니고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외국어가 아니고 국어에 속한다는 특징이다.

(6가)와 (6마)는 차용에 대한 것이고, (6나, 다, 바)는 외래어에 대한 것이어서 완전히 동질적인 것은 아니나, 같이 다루어 보기로 한다.

---

7) 이희승(1941)에서는 외래어의 조건을 순수한 외국어가 아닐 것, 음운상으로 귀화한 것이라야 할 것, 충분히 일반화되었어야 할 것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차용의 대상이 단어인지 그 외의 다른 대상인지가 문제된다. (6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자질이므로, 차용의 대상이 반드시 단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6다口)이다. (6나)는 그 대상이 단어임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6라)는 차용이 행해지는 것이 거의 단어임을 명시하고 있다. (6마)는 거의 (6가)와 그 성격이 같다. (6바)에서는 외래어에 대하여 어휘만을 언급하고 있다. (6)은 전체적으로, 단어가 아닌 단위가 차용되는 일이 있기는 하나, 외래어나 차용어는 지배적으로 어휘적 단위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 (7) 외래어의 단어 조건

언어적 차용은 음운, 의미, 형태, 통사의 전 층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나, 지배적인 차용은 어휘적 차용이므로, 그 대상을 단어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차용어나 외래어에 있어서 차용원(借用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6나, 다, 바)에서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온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라)에서는 차용원이 ‘언어 체계’로 표명되어 있다. ‘언어 체계가 다른 언어끼리의 접촉’이라는 말이 제시되어 있어 차용원으로 상정된 것은 외국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6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배적 전통과 다른 자질’이다. 이는 외래어의 차용원이 반드시 외국어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지배적 전통과 다른 것은 비단 다른 언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일 언어에 속하는 다른 방언에서의 차용도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6마)도 (6가)와 다르지 않다. ‘언어 체계’라는 말을 쓰고 있으므로, 같은 언어에 속하는 다른 방언도 차용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방언적 차용에 의한 단어도 차용어나 외래어라고 할 수 있



는가? 지금 ‘표준어 규정’ 제23항은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되어 있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명개’와 ‘우렁챙이’, ‘물방개’와 ‘선두리’ 그리고 ‘애순’과 ‘어린순’이다. 이는 방언이던 ‘명개, 물방개, 애순’이 표준어 지역에 들어온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방언적 차용어나 차용어 혹은 외래어와 같이 부른 일은 없다. 방언 어휘의 세력이 중부 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음운상으로 중부 지방에서는 모음 /에/와 /애/의 차이가 급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중부 지역 방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다른 방언의 영향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찌개, 빨래, 쓰레기, 비계’ 등과 같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어두 음절에서의 /에/와 /애/의 구별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 음절의 /에/와 /애/의 부분적인 합류 현상을 경상도 방언의 영향으로 보는 일도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을 방언적 차용과 같은 것으로 본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블룸필드(1933: 487)는 폐어(廢語)를 부활시켜 쓰는 것도 방언적 차용으로 보았다. ‘sooth(진실, 사실), guise(외관, 가장), behest(명령, 간원, 간청), meed(보상, 보수), affray(싸움, 소란, 난투)’ 등은 18세기 시인들에 의하여 부활된 단어라고 한다. 오츠카 외 편(1982)에서는 인류학에서 최근 쓰기 시작한 ‘sibling’이라는 단어는 1425년경에 폐어화한 것을, ‘brother’와 ‘sister’의 상위어로 부활시킨 예로 들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중세어의 ‘가람(강)’을 다시 살려 쓴 사람도 있고, 2000년이 시작될 때에는 중세어의 수사 ‘즈믄(천)’을 살려 ‘즈믄 해, 즘년’과 같은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 차용어나 외래어와 같은 말을 적용한 일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언어적 변화와 구별되는 방언적 차용 현상이 원리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때까지는 동일 언어에 속하는 방언들 사이에 어휘적 요소가

넘나드는 현상을 언어적 차용으로 보는 것은 현재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동일 언어에 속하는 방언은 동질적인 언어 질서에 속하기 때문이다. 방언적 차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방언적 변화나 분포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령, ‘부추’를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분추’라고 한다(이익섭 1986 참조). 영서 지역은 대부분 ‘부추’인데 경기도에 가까운 홍천 지역에서 ‘분추’라고 한다. 그렇다면 홍천 지역은 본래 ‘분추’를 사용하는 지역인지, 본래는 ‘부추’ 지역이었는데 ‘분추’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이는 각 방언의 분포와 그 지역 고유 방언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언적 차용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움을 말해 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8) 외래어의 차용원 조건

언어적 변화와 구별되는 방언적 차용 현상이 원리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 때까지는 동일 언어에 속하는 방언들 사이에 어휘적 요소가 넘나드는 현상을 언어적 차용으로 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방언적 차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외래어의 차용원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어로 보기로 한다.

셋째, (6나)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외래어가 그 발음이 적어도 생소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음운 법칙에 동화되어야 하며, 언어 사회에 상당히 보급되어야 하고, 널리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6다)에서는 “수입되어야 한다, 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한다, 사용되어야 한다.”와 같이 조목화되어 있다. (6라)에서는 동화의 문제가 “자기 언어 체계안의 단위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6마)에서는 “그 언어 체계의 유기적 일부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격 짓고 있다. (6바)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국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입장이든, 동화되지 않은 것은 외래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경은(1994),

김원(2003), 정희원(2004)에서는 동화의 정도에 따라 외래어와 차용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창(1989)에서는 동화되지 않은 외래어를 ‘유사 외래어’란 용어로 가리키고 있다.

(6다나)에 대한 해설은 “외국어라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나라 안으로 수입되어야 문제가 될 것이다.”와 같이 되어 있다. 사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슈퍼’<sup>8)</sup>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무엇을 뜻하든, 일단 우리말에 들어오면 그것이 본래 그 언어에서 무슨 뜻을 가졌는지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동네에서는 구멍가게도 ‘슈퍼’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외 하면, (6다나)이나, (6라)의 ‘새로운 언어 단위’, (6마)의 ‘유기적 일부’ 및 (6바)의 ‘국어에 속한다’는 표현은 ‘동화’의 문제를 외래어의 필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6가-바) 사이에는 동화의 정도에 대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6나)의 ‘받아들인 언어 사회의 음운 법칙에 의하여 동화될 일’과 같은 표현 및 (6다나) 혹은 (6바)의 ‘국어’와 같은 표현은 거의 완전한 동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6가)나 (6라, 마)도 이와 다르지 않다. (6가)의 ‘자기 것으로 삼는 것(adooption)’도 동화의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6가, 라, 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의 완전한 동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6마)에서는 ‘유기적 일부’라는 말이 주목된다. ‘유기적 일부’라는 것은 완전한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자가 ‘인공 장기(人工臟器)’를 달았다고 하여 보자. ‘인공 장기’가 우리 몸속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장기와 유기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인공 장기는 그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외래어도 마찬가지이다. 외래어가 우리말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래어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

8) 외래어표기법은 ‘슈퍼’로 적고 있으나, 현재의 일반적인 발음은 ‘수퍼’이다.

것이다. ‘유기적 일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9) 가. radar … 레이더
- 나. racing … 레이싱
- 다. radio … 라디오

(9)는 우리말의 어두음 제약을 여기는 예들이다. 한국어의 어휘 가운데 외래어를 제외하고 또 한자어 가운데 관형사형 어미 뒤에만 ‘리(理)’나 수관형사 뒤에만 쓰이는 ‘리(里, 漚, 哩)’ 등을 제외하고, 또 ‘ㄹ’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를 제외하면, 한국어 사전에서 ‘ㄹ’부에 속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하나도 없게 된다. 이는 우리도 어두의 ‘ㄹ’을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는 분명히 어두의 ‘ㄹ’음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써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0) 고유어 단어의 어두음 ‘ㄹ’ 제약

한국의 고유어 단어는 어두에 ‘ㄹ’을 가지지 않는다.

(9가-다)의 외래어표기는 분명히 (10)의 제약을 여기는 것이다. 이는 외래어가 완전히 국어의 음운 현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9다)의 ‘라디오’는 이전에 ‘나디오’와 같이 발음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국어에 더 동화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외래어표기법은 그것을 버리고 다시 ‘ㄹ’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오히려 외래어가 고유어와는 다른 것이라는 외래어 의식을 되찾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혹은 모든 외래어의 ‘ㄹ’을 ‘ㄴ’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라디오’의 ‘ㄹ’도 ‘ㄴ’으로 바꾸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11) 가. service … 서비스 [씨비스]
- 나. series … 시리즈 [씨리즈]
- 다. sense … 센스 [센스]
- 라. sensor … 센서 [센서]
- 마. Sankt … 상트 [쌍트]
- 바. shoe … 쇼 [쑤]
- 사. sister … 시스터 [씨스터]
- 아. cistern … 시스턴 [씨스턴]

(11가-아)의 원어는 ‘s’나 ‘c’를 두음으로 가진다. 이들의 외래어표기법은 오른쪽 행에 보인 바와 같이 어두에 ‘홀시옷’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발음은 대괄호 속에 보인 바와 같이 된소리로 난다. 표기와 발음의 괴리 상태가 빚어진다. 어두에서 ‘s’의 된소리화는 고유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고유어에 음운 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음 접변과 같은 자동적 교체도 있고, 불규칙 활용도 있고, 미래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는 ‘s’도 된소리로 변한다. 그러나 어두의 ‘s’이 된소리로 바뀌는 일은 ‘소주-쑤주’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절대로 고유어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말 고유어나 한자어에서는 ‘서울’이 [쑤울]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없고, ‘서쪽’이 [쑤쪽]과 같이 발음되는 일도 없다. 분명히 (11가-아)에서 보이는 ‘s’의 된소리화는 서양의 외래어가 우리말에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님을 보인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12) 가. 立志 … 입지 [입찌]
- 나. 獨立門 … 독립문 [동닙문⇒동님문]

(12가)에서 한자음 ‘립(立)’은 어두에서 ‘입’으로 변한다. 그에 따라 ‘\*립지’는 ‘입지’가 된다. (12나)는 자음 접변의 유명한 예를 보인 것이다. ‘독립문’은 대괄호 속에 보인 바와 같이 [동닙문]을 거쳐 [동님문]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독립’이 ‘동닙’과 같이 발음되는가? 이를 단순히 자음 접변으로만 보는 것은 미해결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독’의 ‘ㄱ’이 ‘동’의 ‘ㅇ’과 같이 되는 것은 ‘ㄹ’에 대한 동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에서 ‘립’의 ‘ㄹ’이 ‘ㄴ’이 되는 것도 ‘ㄱ’에 대한 동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독립’이 [동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립’이 ‘입’으로 되어야 한다. 그것은 (12가)와 같은 두음 법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립’이 직접 [닙]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입]이 된 뒤에 ‘ㄴ’ 삽입에 의하여 [닙]이 되는 것이다. 이는 ‘앞이마’가 우선 ‘앞니마’가 되는 것과 같고, ‘벼갯잇’이 우선 ‘벼갯닛’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 뒤에 [닙]의 ‘ㄴ’이 ‘ㄱ’에 작용하여 비음 동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닙문]이 되고, 다시 [동님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독립’의 ‘립’이 어중에서 ‘입’이 되는 것이다. 어중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이 될 수 없다. 이는 한자어가 우리의 고유어와는 다른 음운 현상을 보임을 의미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13) 한자어 및 외래어의 음운 현상

한자어라고 하여 완전히 고유어적인 음운 현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외래어라고 하여 완전히 고유어적인 음운 현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6가-바)에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은 단위에 대한 조건, 차용원에 관한 조건, 음운 현상 등의 동일성 조건 외에도 외래어의 사용 조건이나 동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외래어의 범위와 관련되므로,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 외래어의 범위 문제에 대한 검토

외래어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외연적인 범위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의 의식의 정도 혹은 동화의 정도를 살피는 것이다.

한국어 외래어의 외연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 외래어의 분포나 구성 및 역사 시대에 있어서의 외래어 유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연적인 범위의 하나로 정호성(2000)에서 분석된 『표준국어대사전』의 주표제어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이들의 구성별 분포를 보기로 한다.

(14) 주표제어의 구성 비율

	전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고	외+고	한+외	한+외+고
항목 수 (백분율)	440,262 (100%)	111,299 (25.28%)	252,478 (57.12%)	23,196 (5.26%)	36,461 (8.28%)	1,331 (0.30%)	15,548 (3.53%)	751 (0.17%)

(14)에서 ‘한+고’는 ‘한자어+고유어’로 된 표제어를 말한다. ‘외’는 외래어를 말한다. (14)에 의하면,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57.12%, 외래어가 5.26%가 된다.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단어까지 합친다면, 외래어의 분포는 4% 정도가 늘게 된다.

고대 삼국시대에 ‘불체(佛體), 보리(菩提), 사리(舍利)’ 등과 같은 범어 외래어가 한자를 통해 우리말에 들어온 것, 고려 시대에 ‘아질게말[兒馬], 가라말[黑馬], 구렁말[黃馬], 보라매[秋鷹], 바툼[勇士, 英雄]’ 등과 같은 말과 매와 군사에 관한 몽고어 차용어가 우리말에 들어온 것, 여진어에서 ‘두만[萬], 오랑캐[兀良哈]’ 등과 같은 말이 들어온 것, 만주어에서 ‘마흐래[冠], 우케[물], 널쿠[斗蓬]’ 등과 같은 말이 들어온 것, 근세 중국어에서 ‘상투(上頭), 토슈(套袖), 탕건(唐巾), 사탕(砂糖)’ 등과 같은 말이 들어온 것 등은 이기문(1965, 1972, 1991a, 1991b), 강신항(1982),

남풍현(1985)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임흥빈(1996)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특이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 차용어가 대량으로 한국어에 침투한 것이다. 이는 블룸필드(1933)가 말하는 ‘밀착 차용(intimate borrowing)’에 해당한다. 이는 정복이나 합병, 이주에 의하여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차용을 말한다. 일본이 합병 이후 창씨개명 등과 같은 강압 정책을 씌으로써 일본어 단어가 상당수 우리말에 들어오게 되었다. 독립 후 펼쳐진 국어 순화 운동은 이러한 일본말의 찌꺼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주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외연적인 면보다는, 보급이나 동화와 관련된 외래어 의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6나)를 보기로 하자. (6나)에서는 외래어의 조건으로 “어떤 민족의 언어 사회에 들어가서 상당히 보급될 일, [...] 외국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이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일”이라고 하여 상당히 보급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외국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이고 있다. (6다)에서는 외래어의 조건의 하나로 “사용되어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얼마만큼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6가, 라, 마, 바)에는 사용조건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자국의 언어에 들어왔으니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래어의 보급과 외래어에 대한 차용주의 의식과 그 사용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6나)이다. 그러나 그 조건은 너무나 강력한 것임에 틀림없다.

외국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기 위해서는 외래어가 완전히 고유어처럼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가령 ‘감자’나 ‘고구마’처럼 되어야 한다. 아마도 ‘감자’나 ‘고구마’를 외래어라고 느끼는 한국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그러나 ‘감자’는 ‘감저(甘藷)’가 변한말이고, ‘고구마’는 ‘효행을 하는 감자’라는 뜻의 일본의 대마도 방언 ‘kôkôimo(孝行藷)’라는 말에



서 연원한 것이다(오구라 1935,<sup>9)</sup> 김민수 편 1995).

이들 말이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보급되고 완전히 고유어처럼 인식되게 된 것은 그 지시물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데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여름이면 ‘감자’를 먹고 ‘고구마’를 먹는다. 냉장의 덕택으로 이들을 일년 내내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고유어처럼 인식되게 된 것이다. ‘고구마’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이 1763년이라 하니, 그 연대는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구두’<sup>10)</sup>나 ‘가방’<sup>11)</sup>이나 ‘냄비’<sup>12)</sup>에서도 같다. 중국어에서 우리말에 가장 먼저 차용된 단어를 ‘붓’<sup>13)</sup>으로 본다. 이 또한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건이다. ‘자장면’에 외래어 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중국집에서만 파는 특수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라면’이 더 일상적이 되었다.

‘학교’도 이것을 한자로 ‘學校’와 같이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자어로 인식되는 것이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감자’나 ‘고구마’와 흡사하다. 그래서 [학교]와 같이도 발음된다. 이것을 ‘가교(假橋)’나 ‘하교(下校)’와 비교해 보면 그 특이성이 단번에 드러난다. ‘가교’나 ‘하교’

---

9) 오구라(1935)에 의하면, 건륭(乾隆) 28년(1763) 조암(趙巖)을 정사로 하는 일본사절단이 일본에 갔다가 귀로에 대마도에 들러, ‘고구마’를 가져와 그것을 전국에 심어 보고 보급하였다고 한다. ‘고귀위마(高貴爲麻), 고고이문과(古古伊文瓜)’와 같이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고고이모’의 소리를 적은 것으로 이것이 ‘고구마’가 된 것으로 보았다.

10) ‘구두’는 “똥어유해”(상 45)에 “피화(皮靴) 갖워 ‘구틀’과 같은 말이 있다. 람스테트는 한국어의 ‘구두’가 일본어의 ‘kutsu’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주어의 ‘gulxa, gutul’도 일본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오구라(1934-5) 참조.

11) ‘가방’의 원어는 네덜란드어의 ‘kabas’라고 한다. 그 매개 언어는 일본어일 것이다. /kabaN/ 형태가 주목된다.

12) 일본어의 /nabe/에서 온 것으로 본다.

13) ‘필(筆)’에 대해서 동동화(董同龢)가 재구한 상고한음(上古漢音)은 /piwət/과 같고, Kalgren이 재구한 상고한음은 /piət/, 중고한음(中古漢音)은 /piət/과 같다. ‘붓’과 흡사한 것은 /piwət/이나 /piət/이다. 주법고(周法高) 주편(1974) 참조.

에서는 ‘가’나 ‘하’의 음운론적인 환경이 ‘학교’의 ‘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교, \*해교와 같이 ‘ㅣ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교’나 ‘하교’는 ‘학교’와 달리 일상생활과 그만큼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주요한 현상의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외래어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면, 그 말에 대한 외래어 의식이 없어지거나 약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4) 외래어 의식과 일상생활과의 관련

같은 외래어도 우리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이 밀접할수록 외래어 의식이 약화되기 쉽다.

여기에 적용하는 다른 요인은 우리말 단어의 음운론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계란프라이’나 ‘프라이팬’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 ‘프라이팬’은 주부들이 부엌에서 늘상 사용하는 도구이고, ‘계란프라이’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서 외래어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프라이’와 같은 음운 연쇄나 음절 연쇄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의 음운 연쇄 패턴과는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프라’와 같은 음운 연쇄는 고유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도마도’도 ‘도마도’로 적는 것이 외래어 의식의 약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마도’가 유리한 것은 그 ‘도마’ 부분이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도마’와 패턴이 같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음운 연쇄 패턴이 우리말 단어 구조와는 이질적이다. 따라서 거기서 외래어 의식이 없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크라이스트’보다는 ‘그리스도’가 우리말 단어의 음운 연쇄 패턴에 가까운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15) 외래어 의식과 단어의 음운 구조

같은 외래어라도 우리말 단어의 음운 연쇄 구조와 일치할 때 외래어 의식이 약화되기 쉽다.

여기서는 다소 문제를 단순화하여, 일단 (14)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보기로 하자. (14)에서 외래어의 의식의 소멸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는 핵심적인 단어는 ‘생활’과 ‘관련’이다. ‘생활’이 전 국민의 생활과 관련되느냐 특정한 집단의 생활과 관련되느냐 혹은 몇 사람의 생활과 관련되느냐에 따라 그 범위는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감자’나 ‘고구마’는 보편적인 먹을거리이므로, 전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구두’나 ‘가방’이나, ‘냄비’ 혹은 ‘학교’나 ‘붓’ 등도 보편적 먹을거리보다는 범위가 작을 것이지만, 그래도 전 국민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외래어 의식의 약화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6) 그레이드(등급, 학년), 뉴크리티시즘(신비평), 테코레이션(장식), 머플러(자동차의 소음기), 바캉스(여름휴가), 아르바이트(부업), 안단테(느리게), 알코홀릭(알콜중독), 엑서더스(출국, 이주, 출애굽), 크라이시스(위기), 클라이맥스(절정), 테이스트(취미), 폴리티션(정치가).

(16)의 예들은 전문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쓰임이 일정한 영역에 제한된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적인 생활과 관련된다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특정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4)의 측면에서도 (16)은 외래어 의식이 쉽게 없어지기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음운 연쇄가 우리말 고유어의 음운 연쇄 패턴과는 구별된다.

(16)의 예들을 대응어(對應語)의 측면에서 다시 보기로 하자. (16)에는 그 뜻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괄호 속에 보였다. 그것은 이러한 단어들

에 대한 우리말 대응어가 찾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양 외래어가 가지는 특이한 뉘앙스의 차이, 문화적인 배경과 같은 함축을 제외한다면, (16)에 보인 바와 같은 서양 외래어는 기존의 단어 혹은 전통적인 조어법에 의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16)과 같은 서양 외래어를 쓰는 것은 호케트(1954)적인 의미에서의 ‘필요 충족의 동기(need filling motive)’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필요 충족의 동기에 의한 차용은 블룸필드(1933)에서는 ‘문화적 차용(cultural borrowing)’에 해당한다. (16)에 보인 바와 같은 서양 외래어는, 우리말에서 적합한 대응어를 찾기 어려운 문화적 차용과 달리, 뜻을 부리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기를 꺾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수학 배경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sup>14)</sup> 혹은 전통적인 대응어가 원어의 의미와 다르거나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외래어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외래어의 사용은 호케트(1954)의 ‘권위 동기(prestige motive)’에 해당한다. 이에서는 외래어 의식이 없어지거나 약화되기 어렵다. ‘권위 동기’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어휘에 외국어적인 특색을 더 많이 드러내려 할 것이다. 어떤 이는 프랑스 파리 방언의 [R]음과 같은 발음을 더 과장하려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권위 동기에 의한 외래어 사용에 대해 외래어에 대한 모국어에의 동화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그의 표현 의도를 암살하려는 것과 같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 (17) 권위 동기에 의한 외래어 사용

필요 충족의 동기보다는 권위적 동기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의 경우에는 외래어 의식이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된다.

---

14) 이러한 목적도 일종의 필요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를 고려해 넣지 않는다.

그래도 (16)의 서양 외래어는 우리말에 들어온 연원이 비교적 오랜 것이다. 일일이 그 연대를 밝힐 수는 없으나, ‘그레이드’는 영어의 보급과 함께 들어온 것이며, ‘뉴크리티시즘’은 1950-60년대에 들어온 것이고, ‘바캉스’는 197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단테’는 우리 현대 음악의 맥아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도 그 연원이 그 즈음 이거나 그 전후에 걸치는 것이다.

이들과 구별되는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말이 우리말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가령, 2008년도 노벨상 수상자를 우리 언론에서 소개한다고 하자. 200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Roger Tsien’을 도하 일간 신문에서는 ‘로저 쉐’<sup>15)</sup>로 소개하였다. 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면, 이 말은 한국인 대부분이 처음 알게 되는 것이다. (6나)의 보급 조건, 동화 조건 및 (6다ㄴ)의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하면, 이 이름은 결코 외래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상당히 보급된 것도 아니고, 동화된 것도 아니고, 사용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저 쉐’는 2008년 11월 3일 우리 외래어로 당당한 자격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그 표기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인명, 지명 또는 어떤 지역 특유의 지형지물이나 자연 현상 혹은 동식물명이나 광물명, 혹은 질병 이름이나 그 지역 특유의 산물 혹은 사회·역사적 사건이나 현상 등은,<sup>15)</sup> 한국어 문맥에서<sup>16)</sup> ‘소리 차용’<sup>17)</sup>되는 것만으로도 외래어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이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달리 부를 말이 없고 일단 소리 차용이 행해지면 그 이름이 고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takuaN(澤庵)’을 ‘단무지’라 하고, ‘waribashi(割箸)’를 ‘나무젓가락’이라고 하는 것과 같

15) 김하수(1999)는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고유어나 토착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외국어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16) 이는 (6마ㄴ)의 “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한다.

17) 이는 외국어 단어를 소리에 따라 한글로 적는 것을 말한다. 송철의(1998)에서는 이를 ‘음역 차용’이라 부르고 있다.

은 '뜻 차용'<sup>18)</sup>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달리 부를 말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리 차용이 계속 쓰이게 된다. 이러한 사정이 외래어 보급의 다과의 차원을 뛰어넘게 한다. 유일한 대상이므로, 보급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18) 외래어의 첫 수용과 가정된 보급

외국의 유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우리말에 들어올 때는 한국어 문맥에서 소리 차용되는 것만으로 외래어의 범위에 들게 된다.

(18)에 대해서는 일기장에 남몰래 쓴 것도 우리의 외래어가 될 수 있는냐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 매체에 의한 도입 조건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외래어가 전 국민적인 확산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어와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특정 집단에 의한 수용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분야에 따라서는 개인이 집단을 대표할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외래어의 수용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거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말 문맥에 '소리 차용'된다는 것은 대상 외국어 단어를 단순히 음성 기호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터디'를 보기로 하자. 'study'를 '스터디'와 같이 적는 것을 [stʌdi]와 같은 발음 기호를 적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스]가 [s]와 같을 리 없다. 적어도 [스]에는 모음 [으]가 있다. [시]도 [s]보다는 혀의 위쪽에서 발음된다. 'study'의 [t]는 [ㅌ]과 같은 유기음이 아니라 성문 폐쇄성을 가지고 된소리처럼 발음된다. '터'의 '어'를 [a]라고 한다면, 'study'의 첫 모음은 [ʌ]이므로 [-tʌ-]의 영어 발음은 '-타'와 같이 들릴 수도 있다. '-터-'와 [-tʌ-]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 [d]

18) 이를 남풍현(1985), 송철의(1998)에서는 '의역(意譯)' 또는 '번역 차용'과 같이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뜻 차용'과 같이 부르기로 한다. 이의 대(對)가 되는 것이 '소리 차용'이다.

도 영어에서는 무성음 [t]와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모음 사이에 나는 [ㄷ]보다는 유성성이 강하다. [i]도 한국어의 [이]보다는 더 앞에서 난다. 따라서 외국어 단어의 발음을 현행 한글 자모로 적은 것만으로, 혹은 그러한 자모에 의하여 대표되는 한국어 음운으로 발음하는 것만으로 이미 ‘소리 차용’의 단계에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으로 외국어 단어가 (6마)에 보인 바와 같은 우리말의 유기적(有機的) 일부(一部)가 된다.

‘스터디’에 ‘하다’가 연결되어 ‘스터디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스터디’가 이미 동사이므로, 원어에서는 거기에 ‘하다’와 같은 요소가 덧붙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 도입될 때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모두 명사로 도입되므로, 그것을 동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말의 ‘-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것은 외국어 단어가 외국 문자로 적힐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study했다’와 같은 용법이다. 이에서 영문 자모로 적힌 ‘study’를, 비록 ‘-하-’가 뒤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말 외래어라고는 할 수 없다.

외래어의 범위에 드는 것은 우리말에 들어온 연대가 오래되거나 전 국민적으로 보급되어 거의 외래어 의식이 없어진 것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전문 분야에서만 쓰이는 외래어도 우리의 외래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말 문맥에 현행 한글 자모로 적히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러한 자모에 의하여 대표되는 한국어 음운으로 발음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한국어에 동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맺음말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말을 가리킨다. 블룸필드(1933)의 언어 차용에는 문화적 차용과 밀착 차용과 방언적 차용이 포함된다. 방언적 차용은 동일 언어 속의 다른 방언으로부터 어떤 방언에 들어온

말을 가리킨다. 그러나 방언 차용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언어 변화와 방언의 차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에서 차용한 단어를 외래어라고 부르는 일은 없으므로, 비록 방언과 언어의 구별에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래어는 전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단어를 가리킨다.

외래어는 우리말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어 외래어 의식이 없어지거나 약화된 귀화어도 있고, 아직 외래어 의식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예도 있고, 이제 막 우리말에 들어와서 외래어 의식이 아주 강한 외래어도 있다. 이 맨 마지막 것을 외국어로 보려는 견해도 있으나, 외래어는 우리말 문맥에서 한글로 적히거나 한글 자모로 대표되는 우리말 음운으로 발음되면, 그것은 이미 외래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말의 유기적 일부가 되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외국어와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인명, 지명 또는 어떤 지역 특유의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 혹은 동식물 명이나 광물명, 혹은 질병 이름이나 그 지역 특유의 산물 혹은 사회·역사적 사건이나 현상 등은, 한국어 문맥에서 '소리 차용'되는 것만으로도 외래어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달리 부를 말이 없고, 일단 소리 차용이 행해지면 그 이름이 고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외래어 보급의 많고 적음이란 차원을 뛰어넘게 한다. 유일한 대상이므로, 보급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다. 전 국민적인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외래어로 보려는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전 국민적인 사용이란 것은 분명히 가상적인 것이고, 전 국민적인 사용의 시작도 결국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개인이 집단을 대표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원리적으로 외래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의 무엇을 공식적인 외래어로 정하느냐에 대하여 어떠한 표기를 올바른 것으로 정하느냐는 규범에 따라 하나하나 사정되는 것이다. 간혹



현행 외래어표기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어 발음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어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발음 부호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발음 부호도 간략 표기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상하기 위해서는 정밀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발음 기술이다. 이미 발음이 아니다.

외래어를 우리말에 들어온 말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말의 범위를 우리의 외래어표기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라고 보는 것이 실제적이다. 북한에 들어온 외래어는 사실상 우리의 외래어가 아니고, 연변 조선족의 조선어에 들어온 외래어도 사실상 우리의 외래어는 아니며, 중앙아시아 고려인이나 미국의 한인이나 재일 동포의 한국어에 들어온 외래어도 실제로는 우리의 외래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 모두를 포용하자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표기 규범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강신항(1983), 『외래어의 실태와 그 수용 대책』, 이기문 외 6인 공저, p.116-191.
- 강신항(1983), 「근대화 이후의 외래어 유입 양상」, 『국어생활』 2, 국어연구소, p.23-36.
- 국립국어연구원(1995), 『한국 어문규정집』.
- 국어연구소(1988), 『외래어표기 용례집: 일반 용어』.
- 김 원(2003a), 「독일의 언어 정화 운동과 그 한계」, 『독일어문학』 20, 한국독일어문학회, p.501-524.
- 김 원(2003b), 「외래어 차용의 유형과 원인」, 『독일어문학』 23, 한국독일어문학회, p.273-298.
- 김문창(1989), 「의사 외래어의 문제점」, 『이정 정연찬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탑출판사, p.640-658.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출판부.
- 김민수·최호철·김무림 편(1997), 『우리말 어원 사전』, 대학사.
- 김세중(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p.5-19.
- 김완진(1970), 「이른 시기에 있어서의 한중 언어 접촉의 일반(一班)에 대하여」, 『어학연구』 6(1),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p.247-259.
- 남풍현(1972), 「‘두시연해’ 주석문의 ‘-로’에 대한 고찰: 국어에 미친 한어의 문법적 영향을 중심으로」, 『논문집』 6, 단국대학교, p.7-30.
- 남풍현(1985), 「국어 속의 차용어: 고대 국어에서 근대 국어까지」, 『국어생활』 2, 국어연구소, p.6-22.
- 블룸필드(Bloomfield) L. (1933),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td.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p.21-40.
- 오구리[小倉進平] (1934-5), 「朝鮮語に於ける外來語」, 『外來語研究』 2의 2, 3, 4, 3의1, 京都大學(1975), 小倉進平博士著作集 4, 京都大學國文學會.
- 오즈카[大塚高信] · 나카지마[中島文雄] 감수(1982), 『新英語學辭典』, 研究社.
- 유만근(1980), 「외래어 수용 방식에 대한 고찰: 영·불·중·일의 예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16(1), 서울대 어학연구소, p.57-74
- 유재원(2004), 「외래어의 올바른 수용 태도」,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연구원, p.103-116.
- 유창돈(1971), 『어휘사 연구』, 이우출판사.
- 이기문(1965), 「근세 중국어 차용어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8(2), p.195-204.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 개설』, 탐출판사.
- 이기문(1991), 「고려사의 몽고어 단어들에 대한 재검토」,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32, 대한민국 학술원, p.55-89.
- 이기문(1991), 「한국어 속의 만주통구스제어 차용어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3, 알타이학회, p.23-33.
- 이익섭(1986), 『국어학 개설』, 학연사.
- 이희승(1941), 「외래어 이야기」, 『춘추』 2.3집, 이희승(1947, 1959 재판) 재록, p.163-193.
- 이희승(1947, 재판 1959), 『국어학 논고 제1집』, 을유문화사.
- 임홍빈(1996), 「외래어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6(4), 국립국어연구원, p.3-40.
- 임홍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국어문학

- 논고』, 태학사, p.725-749.
- 이현복 외 3인(1997),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p.197-225.
- 정재도(1996), 「1945년 이전의 '외래말 적기' 이야기」, 『한힌샘 주시경 연구』 9, 한글학회, p.111-124.
-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국립국어연구원, p.55-72.
- 조성식 외 편(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周法高 主編, 張日昇·徐芷儀·林潔明 編 (1974), 『漢字古今音彙』,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 최경은(1994), 「독어에 있어서 외래어 개념」, 『독일문학』 52, 한국독어독문학회, p.403-426.
- 최남선(1946), 『조선상식문답』, 동명사.
- 필자 미상(1985), 「해설: 외래어」, 『국어생활』 2, 국어연구소, p.55-57.
- 호케트(Hockett), C. 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